

아이·어른 함께… 제주바다 물들인 ‘그림꽃’

19일 ‘제4회 제주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
도민·관광객 등 가족 단위 참가자 ‘발길’
상상 더하고 소망 담기도… 특별한 경험

“그림을 그리는 건 3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이후로는 기억이 없으니…” 지난 19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4회 제주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임광진(40)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곁에서 그림을 그리던 아내와 두 아이도 한바탕 웃었다. 꽤나 오랜만인 그림 그리기가 “어렵지만 재밌다”는 아빠는 온 가족과 함께 주변 풍경을 도화지에 담았다.

아이는 물론 어른도 함께할 수 있는 대회인 만큼 올해에도 유독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았다. 선선한 날씨 속에 주말 나들이를 겸해 찾은 도민들과 제주 여행 중인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우연찮게 해수욕장에 들렀다 대회에 참가했다는 강희진(51·서울) 씨는 “요즘엔 그림 그리기 대회가 많지 않은데 옛날 생각이 나서 재밌다”고 말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술을 전공했다는 남편 역시 간만에 크레파스를 들고 여전한 실력을 뽐냈다.

어린이 참가자들의 그림에는 다양한 개성만큼이나 서로 다른 제주바다가 펼쳐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가 더해지기도 했

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이라현(12) 어린이는 ‘jeju sea’ (제주 바다)라는 이름이 적힌 캔 하나와 그 뚜껑이 팽 터지는 장면을 떠올려 냈다. 바닷속 온갖 생물이 터져 나오는 듯한 모습이 유쾌하게 그려졌다.

복제원 어린이(12)는 등대가 비치는 바다에 제주 해녀와 돌고래가 어우러지는 풍경을 펼쳐냈다. ‘바

다하면 무엇이 떠오르나’는 질문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그림 속에는 모두가 걱정 없이 평화롭길 바라는 소망을 실었다.

엄마 아빠와 그림으로 함께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됐다. 조개 잡이 등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던 한운건(9) 어린이는 마주 앉은 엄마의 그림을 보며 “저보다 훨씬 잘 그린다”며 “하루가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행복감을 드러냈다.

이날 하루 대회장이 된 제주바다는 언제나처럼 신나는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다가도 해변을 뛰어다니거나 물놀이, 모래 놀이에 푹 빠져 시간을 보냈다.

모래사장에 설치된 대형 도화지에는 수많은 손이 모여들었다. 종이 위에 선으로만 존재하던 한라산과 돌하르방, 해녀, 바다 등이 점차 색감을 찾아갔다. 모두의 협업으로 완성된 한 점의 작품이었다.

또 다른 즐길 거리로 준비된 풍선 아트에는 긴 대기 줄이 생기기도 했다. 아이들은 길쭉한 풍선이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는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19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4회 제주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내 16번째 온천 발견… 보호구역 지정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부지 내 8116㎡ 규모
수온 29℃·적정 양수량 310t 등 온천 기준 부합

제주지역 관광사업장에서 온천이 발견됐다. 도내 16번째 온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부지에 속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2892번지 일원 8116㎡를 온천공보호구역으

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 온천공의 지하 1000m 지점에서는 수온 29℃의 온수가 솟아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 위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일 뽑아 쓸 수 있는 ‘1일 적정 양수량’이 310t으

로 기준치인 150t을 상회했다. 산성도(pH)는 7.9로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온천법에 따라 온천으로 인정 받으려면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물의 온도가 25℃ 이상이어야 한다.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측은 사업장 부지 지하에 온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자 2024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부존 자원 조사를 했다. 이어 이듬해 굴착을 통해 실제 온천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에 신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온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온천공 보호구역 중 도로 등 일부 국유지를 제외하면 전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측은 이번에 발견된 온천을 영리 목적으로 개발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온천은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온천을 포함해 전부 16곳이다. 이상민기자

한라산 관음사 삼각봉~정상 구간 24일 재개방

낙석방지 시설 보수 공사 등을 이유로 한동안 통제됐던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이 다시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보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삼각봉~정상 구간 출입 통제를 오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개방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탐방하려는 등산객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예약 시스템(<https://visithalla.jeju.go.kr>)을 통해 사

전 예약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관음사 탐방로에 있는 낙석방지책 보수와 데크를 교체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해당 구간 출입을 통제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통제 기간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도민과 탐방객에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정비된 관음사 탐방로에서 안심하고 쾌적하게 산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형 체육고 신설 검토 본격화

도교육청 21일 전문가 TF팀 1차 협의회
입지·운영 모델·시설·재정 여건 등 검토

교육속 제주도교육감이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신설 여부를 올해 안에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21일부터 이를 검토할 전문가 티에프(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형 체육고 설립 검토 전문가 TF팀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제주형 체육고 신설은 전임 김광수 교육감 당시 추진됐던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중학교 부지에 체육고를 신설하고 위미중과 중·고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다 교육감이 바뀌면서 사실상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고의숙 교육감은 그동안 기자간담회와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해 학교 신설은 미래 수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 왔다.

TF팀 협의회에선 학교 입지부터 시설, 재정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도교육청은 학생선수 수요와 적정 규모, 학교 운영모델 등을 분야별 전문가와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후보 부지와 훈련시설, 기숙사, 통학 여건은 물론 사업비, 운영비 등 재정 상황도 들여다보게 된다.

이 같은 검토과제는 21일 예고된 첫 회의에서 꺼내질 전망이다. TF팀의 향후 운영계획도 이날 확정된다.

TF팀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타 시·도 체육고 2~3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도내 관련 지역을 방문해 교육·체육 여건과 접근성 등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 TF팀 운영은 특정 지역을 미리 정하거나 기존 의견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제주형 체육고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와 체육계, 지자체,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보름달처럼
환하고 풍성한
추수곡되세요

조천농협

조합원 **김성준** 올림